

간호학생이 온 날

Stan Elliott

<카톨릭의대 간호학과 3년> 채 수 희 역

내가 입원한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오전 7시 30분에 유쾌한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한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가 나의 동료환자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학생간호원 Miss Jones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방을 돌보도록 책임 맡았습니다”하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퇴원한 지금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가라 앉았었으나 아직도 매우 명랑한 어조로 내 귀에 남아 있다.

“이분은 나의 지도강사인 Miss Hogan입니다”라고 함께온 선생을 소개했다. Miss Hogan은 우리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눈초리를 던지고, 짧게 웃음을 짓고는 Miss Jones가 그녀가 받은 실습을 실시하도록 우리들과 함께 남겨두고 나가버렸다.

나는 학생간호원이 나의 동료의 의치를 입에서 꺼내 매우 빛나게 닦아 다시 제자리에 넣어 주는 것을 주시해서 보았다.

나는 나의 동료가 그 자신의 얼굴을 씻을 수 있다고 약간 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에 5, 6명의 다른 소녀들이 그의 침상을 만들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다. 누군가 침대 사이로 커벳을 잡아 당겼고 나는 쪽우탕의 커벳을 통해서 이들의 모양을 관심있게 살펴 보았다. 나는 그들의 즐거운 지절임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이제 다른 다린 읍적여봐” “아, 내가 할게” “애, 매

우 잘 됐다” 그러나 환자로 부르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막 더 관심을 두게 되었을때 커벳이 다시 젖혀졌고 거기에 나의 동료는 매우 지친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으나 몸이 잘 닦여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Miss Jones는 나에게로 다가왔다. 확실히 나는 이미 면도도 했고 세수도 했고 양치질도 끝났다. 긴장한 상태로 오랫동안 그녀는 나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 그러나, 나의 신체배설 상태를 알아내기로 결정했는지 그녀는 새노트를 꺼낸 후 물었다. “오늘 아침에 배변을 보셨어요?”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신체기판의 기능이 전부 원만하다고 답해주었다.

그녀는 잠시동안 실망한 듯이 바라보고 돌아서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안심했다. Miss Jones가 나가자마자 또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Uniform으로 봐서(입은 웃으로) 나는 이사람도 학생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Miss Krop-tkin이라고 새긴 산뜻한 작은 명찰을 달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나를 잠시나마 숨막히게 하려고 하는것 같은 전율의 표현이기도 했다.

“나는 당신의 혈압을 측정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만일 내가 거절이라도 한다면 그녀는 울음을 터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다른 간호원들에 의한 경험으로 봐서는 “정상입니다” 하고 소매

를 내려주기 까지 몇마디의 유쾌한 대화를 주고 받고는 재빠르고 능숙한 솜씨로 측정하였으나 이러한 것은 Miss Kroptkin의 경우에는 힘이 들어 보였다. 잠시동안 혈압을 쟀 준비를 한 후에 그녀는 커프(culf)의 tube을 수은주에 꽂았다.

그녀가 허리를 뻗을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약간 미소를 주고 받았다. 그녀는 새번씩이나 노력해 찾은 나의 상박주위에 커프를 감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녀가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내가 브기에는 틀렸다. 그녀는 다시 나의 팔꿈치 부위에서 무엇인가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는 동안 나는 끈기있게 기다렸고, 그녀는 계속해서 다시 찾고 있었다. 확실히 무언가 잘못됐거나 또는 잘못 놓여졌거나 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 쳤을때, 나는 사과하는 듯이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나 그것을 발견한 후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나의 팔에 있는 부속장치 부풀릴 ball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나는 수은주가 올라 꼭대기로 흘러 넘치겠다고 생각되는 곳까지 오르는 것을 주시해 봤다. 마지막 가능할 순간에서 그녀는 멈췄다. 커프는 마치 강철 band와 같이 느껴졌다.

Miss Kroptkin은 수은주가 내려가는 것을 끈질기게 주의해서 들여다 보았다. 세번의 깊은 심호흡을 취한 후 그녀는 청진기를 내팔에서 떼었다. 곧 이것은 그녀가 만족을 얻은 것 같이 보였고 그녀는 드디어 압력을 빼기 시작했다. 조금씩 조심스럽게 그녀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듯이 압력을 내렸고 그동안 나의 손가락엔 눈에 잘 보일만큼 푸른 그림자가 짙어져 나의 팔위로 움직여 오기 시작했다.

수은주가 밑에 도달했을때 나는 나의 손에 감각이 되돌아 가기를 기대했다. 그때 Miss Kroptkin은 말했다. “다시 한번 해 봐야겠어요...”. 이때 갑자기, Miss Jones가 나의 방으로 부산스럽게 들어왔다. “여보세요, 저 당신 맥박을 다시 측정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말을 하면서 그녀는 나의 팔을 알맞는 방법으로 잡

고 그녀가 끝나칠 때까지 벽을 보고 돌아 누우라고 돌려 앉혔다. 잠시 후에 그녀의 손가락은 움직였고, 또다시 움직였다.

나는 그녀가 이렇게 나의 맥박을 잡는 것은 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쳐다 봤을때 그녀는 다시 맥을 잡으려고 움직였다. 그녀는 얼굴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의 눈이 서로 부딪혔고 다시금 나는 막연하나마 죄의식을 느꼈다. “어제밤엔 그곳에서 잤어요” 하고 나는 도움이 되게 말했다. Miss Jones는 난처해 하는 것과 같이 보였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이 나의 팔목을 꺾 눌렀다. 나는 약 30초 동안을 참고 기다린 후 가볍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약간 더 세게 눌렀다. 또다시 30초가 흘렀다. Miss Jones는 여전히 그녀의 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갑자기 나는 자유롭게 뻗었다. “감사 합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벗어난 새 노트를 끄집어 내어 그 안에 신기한 표식을 했다. “Mr Elliott, 오늘은 즐거웠습니다만 이제 나는 학교로 가야만 합니다” 하고 그녀는 사라졌다. 그날의 나머지는 느리게 지나갔다. 모든 긴장후에 시간은 질질 끌려가는 듯 하였고 지루한 고요함이 방안에 가득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간이 식사시간이었다. 나는 책을 읽다가 책너머로 문득 쳐다 봤을때 침대 발치에 아주 젊은 아가씨가 또다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Miss Friedson입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돌보도록 담당 받았읍니다.” 하고 말했다.

순간 나는 머리 위로 이불을 슬그머니 끌어 당기고 숨도 안쉬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A.J.N. March, 551~552, 1969에서>